

R F 태그로 유틸리티 세상을 연다, 인사이트알에프

놀이공원에서 더 이상 찡그리지 마세요

큰맘먹고 찾아간 주말의 놀이공원. 날씨도 화창하니 콧노래가 절로 난다.

오늘은 뭘 타볼까? 어라, 줄이 제법 긴걸. 하지만 이 정도쯤 참아 줄 수

있지. 오늘은 주말이니까, 화창하니까. 이용권을 구입하고 놀이기구

앞에 왔지만 줄은 아까보다 더 길다. 짜증이 술술 고개를 든다.

유틸리티 세상이 코앞이었는데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경희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인사이트알에프'의 장영철 대표는

누구나 일상에서 접하는 이런 불편함에서 사업아이템을 찾았다.



환하게 웃고있는 인사이트알에프 브레인들 왼쪽부터 장영철 대표, 이순미 팀장, 장지민 팀장

Q ■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창업 전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하다.

A ■ 프로그램관련 일을 했었다. 1999년에는 미르메라는 곳에서 세계최초의 탭방식 웹 브라우저를 개발했었고, 2001년에는 'Neptune브라우저'와 아이콜스의 그룹웨어 등을 개발했었다. 하지만 실패를 맛본 뒤 기술뿐 아니라 경영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고 절감해 경희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그간의 실패경험을 통해 객관성 있는 시장조사와 사업성 분석으로 지금의 인사이트알에프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Q ■ 인사이트알에프의 사업아이템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

A ■ 애초의 사업아이템은 '미아찾기'였다. 하지만 현실의 높은 벽을 느끼고 수정한 것이 바로 '놀이공원의 예약 및 알림 시스템'이다. 유틸분야에만 적용되던 RFID기술을 테마파크의 탑승 예약, 알림에 이용한 것으로 이용객들은 기다리는 수고를 덜 수 있고, 테마파크 측은 정확한 CRM을 확보해 고객의 유지 및 강화뿐 아니라 신규고객 창출로 이용할 수 있다. 수정되긴 했지만 우리의 1차 최종 목적지는 여전히 RFID기술을 확장한 혼합형 태그를 통한 미아찾기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먼저 예약 및 알림 시스템의 저변을 넓히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다.

Q ■ 최근의 성과와 올해 인사이트알에프의 목표는 무엇인가.

A ■ 작년 창업대전에서 산차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이다. 우리 같은 초창기 벤처기업들에게 주위에서 주시는 이런 관심은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 올해는 벤처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 방문자 관리 시스템인 '비지터태그시스템'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창업대전으로 우리의 아이팀이 수면위로 떠올라 갈 길이 급하고, 해야 할 일은 많아 무엇보다 바쁜 한해가 되겠지만, 도전정신 하나로 인사이트알에프 대풍년의 2005년을 만들고 싶다.

리버티태그 흐름도

- ① 입구에서 간단한 등록 후 리버티태그시스템이 내장된 입장권 수령 →
- ② 원하는 놀이기구 앞에 설치된 예약시스템에 수령받은 입장권 인식(대기 예상 시간 및 유틸 놀이시설 확인) →
- ③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한 탑승대기 시간 및 예약 기종 알림 → ④ 놀이기구 탑승 및 CRM확보

R F I D 란 ?

일정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무선방식으로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마그네틱이나 바코드 등은 특정 표시가 필요하고 훼손이나 파손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인식이 떨어지는 반면 RFID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 비접촉방식이라 자료의 인식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RFID는 기존의 마그네틱 및 바코드 시장을 급속히 대체하면서 출입통제, 비품 물류관리, 주차관리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솔루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